

# 환경오염과 세계의 침묵

우리나라의 유명한 시인인 김광섭은 일찌기 문명 비평적 詩를 많이 썼다. 그의 詩인 「번영의 폐수」는 수질오염의 심각성을 잘 표현하고 있다.

“은강공업지역이 저기압권에 들면 여러가지 공장에서 뿜어내는 유독가스가 지상으로 깔리며 대기를 오염시켰다. …… 호흡장애·기침·구토 증상도 자주 일으켰다” 이 글은「난장이가 쏘아올린 작은 공」의 작가 조세희의 소설작품에 자주 등장하는 어느 공업단지의 대기오염 현상을 표현한 글이다. 환경문제는 이제 대중적인 인식을 바탕으로 각종 논문, 저술을 비롯하여 소설 속에서도 그림 속에서도 심지어 詩의 귀절 속에서도 그 우려와 비판이 나타나고 있다.

영국의 유명한 소설가인 찰스 디킨즈(Charles Dickens : 1812~1870)의 「고난의 시절」(Hard Times, 1854)의 제 5장은 광산촌을 자세히 그린 것으로 유명하다. 보기 흉한 벽돌집들, 시커먼 운하, 자주빛으로 퇴색된 강물, 우리는 디킨즈가 묘사한 광산촌의 풍경 속에서 산업사회의 고통을 볼 수 있으며 순응주의에 입각한 새로운 삶의 모습도 보게 된다. 우리나라의 유명한 시인인 김광섭은 일찌기 문명비평적 詩를 많이 썼다. 그의 대표작은 「성북동 비둘기」로 알려져 있으며 그의 詩인「번영의 폐수」

는 수질오염의 심각성을 표현하고 있다.

“번영이 버린 물/바다에 흘러들어/ 고기병 신되어/벌레가 된 것을/어미가 물어다 먹인/ 새끼제비가 죽은 것을 보고 놀라/갑자기 눈이 어두운 어미제비도/전봇대에 앉아 울다가 죽었다/참새에게는 쌀을 주고/제비에겐 벌레를 준/하늘을 원망하여 바다는 고요했고/새는 곡했다/늦가을 강남갈 제비도 없고/삼월삼짇날 강남서 울 제비도 없으니/놀부 흥부는 제비 잘사는 나라로/이민이나 가시지” - 김광섭작 「번영의 폐수」전문

이 詩는 경제개발의 미명아래 버려지던 각종





환경의 파괴는 아름다운 강산을 정적만 감도는 폐허로 만들어 버린다. 침묵으로 만들어 버린다.



폐수가 바다에 흘러들어 해양생태계를 오염시키고, 나아가 생물농축(Bioconcentration) 현상을 일으키며, 먹이사슬(Food chain)에 의한 생태계 파괴를 시적으로 보여주고 있다. 이 시는 1950년대 일본에서 일어났던 메칠수은중독사건인 미나마다병(Minamata disease)를 떠올리게도 한다. 공장폐수 속의 무기수은이 여러

al)의 메칠수은 중독 주요 3증상 중 시야협착을 일으킨 것이 아닌가도 생각해 본다. 각종 중금속과 잔류농약이 오염된 물과 그 속에 서식하고 있는 생태계를 파괴시켜, 오염된 쌀과 벌레를 먹은 참새와 제비들은 사라지고 이제 강남갈 제비도 없고 강남서 울 제비도 없는 적막한 산천을 풍자한 시로 생각된다. 환경의 파괴는 아름다운 강산을 정적만이 감도는 폐허로 만들어 버린다.

#### 침묵의 봄

레이첼 카슨(Rachel Carson : 1907~1964)의 「침묵의 봄」(Silent Spring, 1962)은 미국을 움직인 25권의 책중 한권이다. 여류해양식물학자인 카슨은 주로 과학적 저술인 「우리주위의 바다」(The Sea Around Us, 1941)와 「바다의 위기」(The Edge of The Sea, 1955)를 써서 유명한 작가가 되었으며, 「침묵의 봄」은 베스트셀러가 되었다. 그녀는 이 책에서 DDT의 무차별 사용에 관련된 생태계의 파괴를 경고하였으며, 봄의 소리를 침묵케한 것은 살충제나 제초제의 무분별한 살포때문이라고 주장하였다. 이 책은 생태계의 파괴와 그로 인한 인간의 패배를 대중에게 길이 인식시켜줌으로써 현대 환경보호운동에 지대한 영향을 준 책이다. 「침묵의 봄」 이후에 미국이나 기타 여러나라에서 수은중독, 일산화탄소, 스모그, 식품중 발암물질 등에 관한 책이 출판되기 시작하였고 환경문제는 이제 널리 인식되게 되었다.

#### 침묵의 비명

1985년 미국에서는 낙태반대운동을 위한 총



가지 메카니즘에 의해 유기수은으로 변환되어 각종 중추신경장애를 일으키고, 태아성 미나마다병도 야기시켰던 일본 큐우슈우의 작은 항구 미나마다의 참극이 생각난다. 또한 카드뮴중독사건인 이타이이타이병(Itai-Itai disease)의 고통도 귓전에 들려오는 것 같다. “갑자기 눈이 어두운 제비”는 헌터 레셀(Hunter-Ruse-

“

「레이첼 카슨」의 「침묵의 봄」에서는 DDT의 무차별 사 용에 관련된 생태계의 파괴를 경고 하였으며, 봄의 소리를 침묵케 한 것은 살충제나 제초제의 무분별한 살포 때문이 라고 주장했다.

”

격적인 필름이 제작되어 공개되었다. 이 필름은 뉴욕의 유명한 산부인과 의사인 버나드 N 네이던슨이 태아가 중절수술을 받으며 죽어갈때 느끼는 고통의 표정을 적나라하게 촬영하여 「침묵의 비명」( Silent Scream)이라는 제목을 붙였다. 태아는 4주정도 부터 심장박동을 시작하고 6주부터는 태내운동을 하고, 11 주에는 웃기 시작하는 등 감정을 표시하며, 12 주에는 뇌기능이 활발해진다. 이 12주된 태아의 중절수술시 화면에서는 태아가 꿈틀거리면서 입을 크게 벌리는 장면이 나온다. 급박한 생명의 위협을 느낀 태아는 소리없이 지르는 「침묵의 비명」을 들려주고 이윽고 태아의 머리가 갈라지고 낙태시술자가 태아의 머리조각을 하나씩 꺼내는 장면들이 연속된다. 이 필름을 보고 미국의 레이건 대통령도 낙태금지 필요성에 대한 인식을 갖게 한 자료로 알려져 있다. 임신중절은 간접적인 살인행위로서 태아는 분명히 고통을 받고 있다고 주장한다. 「침묵의 비명」을 지르고 있다고 주장한다.

#### 침묵의 재앙

1982년 11월 8일 미국의 시사주간지 「Time」은 커버스토리로써 산성비를 다루었다. 그리고 그 제목을 “ Acid Rain-Silent Plague ” 라고 붙였다. 즉 전세계에 내리는 산성비를 「침묵의 재앙」( Silent Plague)로 표현하였다. 산성비는 pH5.6이하의 강수로써 각종 발생원에서

배출된 유황산화물 질소산화물 등이 공기 중에서 황산염이나 질산염의 Mist가 되고 이것이 비로 내려 산성비가 된다. 산성비는 그야말로 침묵속에서 서서히 이 땅에 내려 호수, 토양, 산림 등 각종 생태계를 파괴하며 우리에게 여러가지 경제적 피해를 가져오게 한다. 비는 소리없이 부서져 내리지만 정적 속에서 침묵속에서 여러가지 재앙을 가져 오게 한다. 이러한 산성비 현상을 「침묵의 재앙」이라고 표현한 것도 타당성이 있는 것 같다.

#### 세개의 침묵

살충제와 제초제 등의 무차별 살포는 「침묵의 봄」을 우리에게 맞이하게 하고 인구 억제라는 미명하에 무분별하게 자행되는 임신중절은 「침묵의 비명」을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으며 죽음의 그림자처럼 내리는 산성비는 「침묵의 재앙」을 우리에게 가져다 줄지도 모른다.



허문영 / 藥學博士로 환경 위생학을 전공했다. 현재 강원대학교 약학과 教授.